

### 행복, 평화, 순수성, 세 가지에 대한 권리.

오늘 밥다다는 그를 사랑하는, 오랫동안 잃었다가 지금 찾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보고 있다. 자녀들 각자는 깊은 사랑을 갖고 만남을 축하하려고 그의 집에 당도했다. 이 땅은 너희들의 집, 공여자의 문전이라고 불린다. 이 칭송은 이 스위트홈에 속한다. 가장 다정한 아버지는 스위트홈에서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들과의 만남을 축하하고 있다. 오늘 밥다다는 특히 각 자녀의 이마에서 특별한 권리의 선 세 개를 보고 있다. 각자가 자녀이므로 각자의 이마에는 선이 석 줄씩 있다. 그의 자녀라는 면에서 모든 이는 권리들을 가졌지만 거기에는 등수가 있다. 일부 어떤 자녀들의 경우엔 행운과 행복에 대한 권리의 선이 아주 뚜렷하고도 깊다. 역경이 아무리 많이 생기거나 또는 그들 마음속에 슬픔을 자아내려고 아무리 많은 슬픔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들은 “슬픔”이라는 말을 모른다. 역경 속에서도 행복의 대양에게서 얻은 권리들과, “와, 행복한 드라마! 와, 모든 배우 각자의 배역!”이라는 지식에 대한 깨달음으로 각자의 권리에 대한 행복으로 그들은 어떤 슬픔도 행복으로 바꾼다. 권리를 갖고 그들은 슬픔의 어둠을 변화시키고 행복의 공여자 마스터가 되어서, 단지 그들만 끊임없이 행복의 그네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행복의 파동을 주는 도구들이 된다. 그들의 행복에 대한 권리의 선은 이런 식으로 아주 뚜렷하고 깊어서 아무도 지울 수 없다. 그 선들을 지우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변할 테지만, 그것들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행복의 공여자 마스터에게서 행복을 한 방울 가져간다. 바바는 이런 유형의 선들을 가진 자들을 보았다. 이것은 1등으로 복이 많다고 불린다. 1등을 나타내는 표시는 이기는 것이라고 너희들에게 얘기해줬었다.

둘째 선은 평화의 선이다. 평화가 너희들 본래의 종교라는 것을 너희들 모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가 모든 이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종교라는 면에서 무슨 얘기가 전해져 왔느냐? “너희가 곧 죽어야 하더라도 너희의 종교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었다. 너희가 정신을 가누지 못할 경우는 있을지언정 너희들의 종교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평화와 행복이라는 유산에 대한 권리를 지닌 자들은 결코 평화를 놓아버릴 수 없다. 평화롭지 못한 이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자들, 남들에게 끊임없이 평화의 광선들을 보내주는 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라는 그들의 종교나 평화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결코 놓아버릴 수 없다. 이것은 두 번째 권리의 선에서 1등이 되는 것이라고 불린다. 세 번째는 순수성에 대한 권리의 선이다. 자녀들 모두 순수한 영혼들이다. 그렇긴 해도 어느 자녀가 1등의 권리를 차지할 행운을 가지느냐? 행동과 얼굴을 통해서 사람들이 순수성과 왕족다운 품위의 인격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들이다. 세상의 삶에서도 세속적인 인격이나 왕족다운 품위가 보이지만, 복 많은 자녀들에게서는 영적인 품성과 순수성의 왕족다운 품위가 보인다. 이것은 순수성이라는 1등의 행운의 선이라고 불린다.

오늘 바바는 모든 자녀의 이러한 권리의 선들을 보고 있었다. 너희들도 역시 각자의 권리의 선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세 가지의 선을 모두 다 획득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라. 너희는 권리를 온전히 다 차지했느냐, 그 일부만 차지했느냐? 합류시대에 너희가 어떤 퍼센티지를 가진다면 사이클 내내 그 비율이 있을 것이다. 송배받을 가치 있는 신분에서 비율이 있을 것이다. 완전한 송배는 없을 테고, 그 비율만큼 보상도 있을 것이다. 앗차.

오늘 대다수는 (지식에) 새로 들어온 자들이고 그만큼 오래 된 자들이다. 너희 스스로를 새로운 자녀들이라 부르든, 매 사이클마다 권리를 가진 자녀들이라고 부르든, 너희는 각자의 권리들을

다시 한 번 차지하려고 너희에게 속하는 장소에 왔다. 제일 큰 행복을 누가 가지느냐? 너희들 각자는 “제가요!” 라고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믿느냐? 아니면 일부는 더 큰 행복을 갖고 나머지는 덜 가지느냐? 심지어 밥다다도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자녀들에게 특별한 만남에 대한 권리를 더 주려고 특별히 왔다.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냐,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더 큰 사랑을 가졌느냐? 누가 깨지지 않는 사랑을 가졌느냐? 밥다다는 “자녀들 먼저!”라며 자녀들을 항상 그의 앞에 세운다. 이런 이유로 자녀들이 앞세워지고 아버지는 그들의 뒤에 있다. 자녀들은 항상 앞에서 걸어야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들 뒤에서 걷는다. 이런 이유로 그러한 자녀들을 보며 밥다다도 역시 기뻐한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 속에 잠겨 있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다. 그러한 자녀들의 염주도 역시 있다. 아버지와 봉사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 이 나라와 외국, 양쪽 모두에 있다.

**밥다다가 자그디시 바이를 만나심 .**

그러한 자녀들을 너는 보았을 테지? 너는 좋은 여행도 하지 않았느냐? 너는 육신의 바바에게서 받은 특별한 축복들을 몸의 형태로 실행에 옮긴다. 너는 성공을 타고난 권리로 경험했을 테지? 모든 유형의 성공 중에서, 특별한 성공을 나타내는 표시는 무엇이야? 고귀한 성공은 밥다다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서 보일 때 그것은 고귀한 성공이다. 이것이 계시, 드러냄이라는 뜻이다. 여행을 다니는 이가 누구든 아버지와 대등해진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공을 나타내는 표시다. 너희가 더욱 발전하면서 모든 곳 어디에든 더 많이 계속 퍼져나갈 소리가 바로 이것이다. 자녀가 용기를 내면 아버지는 반드시 돕는다. 카라반하르 (남들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분)가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 앗차.

항상 완전한 행운을 가진 자들에게, 완전한 권리를 가진 적법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아버지와 나” 라는 결합된 형태로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사랑의 대양 안에 잠긴 채로 머무는 복 있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행운의 공여자, 축복의 공여자로부터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 자그디시 바이가 밥다다에게 외국 여행에서의 소식을 말שמ드리고 모든 형제자매들의 이름으로 개별적인 기억을 전해 드림 ).

모든 이의 사랑의 소식이 계속해서 밥다다에게 당도하고 심지어 지금도 당도하고 있다. 밥다다는 특히 온갖 곳에 있는 외국의 자녀들 모두를 축하한다. 무엇에 대한 축하냐? 너희의 산스카르, 언어, 생활양식을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 너희들 중 대다수는 집중적인 노력가들이었다. 마치 누군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가 버리는 것과 같다. 너희들은 새로운 제도와 관습들, 관계들을 채택했고 그 다음에도 너희는 제 스스로를 지난 사이클의 적법한 영혼들이라 여기며 항상 전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데 대해 특별히 축하한다. 너희들은 참으로 크나큰 사랑으로 밥다다를 기억하고 그것은 늘 밥다다에게 도달한다. 제 스스로를 잊기까지 하며 너희는 모든 사물에서 항상 아버지를 기억한다, 이것은 특별한 변화다. 너희는 이 사랑을 바탕으로 전진한다. 너희는 이 사랑을 유지한다. 미묘한 사랑의 부양이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앗차.

사랑과 기억들을 보내온 자들 모두에게, 사랑의 대양 아버지도 역시 그들 모두의 앞자락 가득히 사랑을 보내주고 있다. 바라트 출신의 자녀들도 못지 않다. 외국 사람들은 바라트의 행운에 대해서 노래 부를 때 행복해진다. 그들이 외국에 있는 자들을 깨울 수 있었던 것은 바라트의 사람들이 깨어났기 때문이었다. 깨어난 이들은 바라트에서 온 자들이었다. 만일 너희 모두

해외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토록 많은 센터가 어떻게 해외에 생길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유로 너희들 모두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너희는 참으로 단기간 내에 센터를 연다. 너희는 태어나서 조금 자라고 나면 센터를 하나 연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자립해서 그렇게 한다. 너희들에게는 초대를 기다리는 지원마져 없다. 가진 모든 것을 미묘하고도 물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서 너희는 용기를 유지하면서 센터를 연다. 그렇긴 하되 그들을 부양해주는 일은 너희 모두의 책임이다. 그들에게 용기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것 역시 아버지와 더불어 너희들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지식의 심오함을 들으며 그들은 행복해졌다. 요가와 사랑을 기반으로 그들은 전진한다. 그러나 지식에서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그들을 더 한층 봉사하는 도구로 만들 것이다. 마음을 준비하는 데는 지식의 깊이가 요구된다. 지식과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줄 수 있었던 것의 결과는 좋다. 누구든 그리로 가면 참으로 행복해한다. 그들은 마치 하늘의 별이 하나 지구로 내려온 듯한 경험을 했다. 앗차.

**밥다다가 다디지와 다디 장키에게 말씀하심 .**

너희들 둘 안에 세 번째 형상 (디디)이 합쳐져 있다. 너희들은 아버지와 대등하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그러하다. 너희는 이것을 경험하느냐? 아버지가 봉사하려고 브라마의 지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역시 아버지를 위한 도구들이다. 지금 현재 카라반하르 아버지는 도구들을 통해서 그의 과업이 수행될 수 있게 하고 있다. 너희는 특별한 도구들이다. 그는 브라마를 통해서는 미묘한 형태로, 너희들을 통해서는 육신의 형태로, 과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밥다다는 매 1초1초마다 너희에게 수백만 곱절보다 더 많은 사랑과 기억을 준다. 너희는 장식이다. 너희는 아버지와 마두반의 특별한 보석 장식품이다. 밥다다는 너희를 매 순간마다 보며 기쁘다. 앗차.

**종교 지도자들에게 봉사할 계획 .**

종교 지도자들에게 봉사하는 데 특히 그 형태가 필요한데, 종교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그들도 역시 영리하기 때문이다. 그들도 역시 사랑으로 너희에게 귀 기울이지만, 현실적인 방면에서 그들은 부족하다. 그들로 하여금 오늘 너희가 얘기한 것을 비전으로 보게 하고, 그들 앞에 있는 자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라, 그러면 그들이 고개 숙여 절할 것이다. 그들은 말에 대해서가 아니라 경험에 대해 고개 숙여 절한다. 그들은 너희들 역시 아주 잘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축복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특별하다고 여기게 해라. 어떤 이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신인들이 (상대방의) 취약점을 알아차림으로써 승리를 얻었다는 것이 경전에 기억되며, 이것도 역시 영성의 문제다. 따라서 종교의 지도자들도 역시 틀림없이 올 테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봐야만 그럴 것이다. 지금 그들은 그저 지식이 좋다고, 너희들은 착하고 자기들도 역시 선량하다는 말만 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 그들 입에서 나와야 한다. 길은 많고 너희들의 길은 그것들 중의 하나에 불과한데, 이것이 변해야 된다. 해방과 삶속의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여기뿐이라는 것에 마음이 움직이면 그때는 그들이 고개 숙여 절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

너희들은 이제 가사를 돌보며 바빠졌다. 하지만 너희가 남들에게,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것과 분리되어 머물러야 한다고 얘기하듯이 너희 스스로에게도 매일 이 교과목을 가르쳐라. 가사는 늘어날 텐데, 너희는 가정에서 살면서도 그것들에 대해 초연한 상태로 머물 필요가 있다. 너희는 주의를 좀 더 기울이고 이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제 스스로에게 봉사하느라

바빠졌지만 무한한 세계에 대한 도취감도 있어야 한다. 그 모든 것을 돌보면서도, 무한한 봉사를 위해 너희의 지각은 자유로운 상태로 머물게 해라. 몸, 마음, 부, 지각은 더 많은 것을 창조하느라 몰두해 있다. 너희는 육신의 바바를 보았다. 자기 사업을 돌보는 동안에도 그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유지했다. 그는 바쁜 것이 이름이나 흔적조차 얼굴에 보이게 한 적이 결코 없었다. 브라민 가족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지만 그는 지각에 무엇을 가졌었느냐? 무한함, 즉 그들에게 힘을 줘서 그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혼들을 깨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날 필요가 있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아직도 부족하다.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들은 함께 모여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너희는 각자 아버지와 대등한 등대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 남들이 빛, 힘, 열성, 열의를 받게 해라. 너희는 평범한 영혼들이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육신을 가졌을 때 바바의 말, 생각, 시선, 태도는 평범하지 않고 독특했다. 그러므로 그러한 단계를 만들어라. 이런 이유로 아직도 봉사가 완전히 멈춰져 있다. 비용을 무척 많이 들여서 어려운 일을 참 많이 하는데도 몇 명이나 나오느냐?

지금은 때에 따라 선발대마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 육신의 형태인 자들은 더 빨라져야 한다.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너희에게 날짜는 알려주지 않겠다. 시험지는 반드시 올 것이다. 일부 어떤 이들은 너희의 생각을 체크해보려고 오기까지 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시험하려고 올 것이다. 계시가 더 많이 일어날수록 시험지들이 더 많이 올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의 생활을 실제로 점검해서 너희의 요가와 다른 요가들의 차이, 그리고 너희들의 지식과 다른 지식의 차이를 보려고 올 것이다. 너희의 말은 그들이 체크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참으로 많이 해둬야 한다. 1984년도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시험지들도 역시 올 것이다. 이것은 말을 퍼뜨리는 준비 수단이다. 초창기에는 너희들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데도 남들은 몸을 못 보고 단지 빛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갔다고 느낄, 그러한 방식으로 걷는 훈련을 하곤 했었다. 너희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처음 갔을 때 너희가 받은 첫 번째 시험지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너희의 몸을 보지 않고 빛만 보게 해야 한다는 시험지였다. 그들이 너희를 딸이 아닌 여신으로 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너희는 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느냐? 만일 그들이 너희를 관계의 형태로, 즉 그들의 딸로 봤다면, 그 경우 너희는 시험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 매우 나쁜 때가 곧 올 텐데, 그러나 너희의 단계는 남들이 항상 빛의 형태를 보는 그런 것이어야 하며, 너희가 안전해지는 길이 이것이다.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빛의 요새를 보게 해라. 신을 위한 봉사에 쓰일 수도 있는 너희의 재산을 그냥 그렇게 허비되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들이 찬장 등 가구를 보지 않고 빛의 요새를 보게 해라. 이 정도로 훈련이 있어야 된다. 삭티 형태의 화려함이 더 늘어나야 한다. 너희가 평범하게 보이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져라. 아주 다양한 형태의 공격들이, 배회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불순한 시선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재해들과 질병들을 통해서 올 테지만, 이 모든 것에서 보호받는 길은 아주 특별해지는 것, 즉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길이다. 그저 너희가 아주 특별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는 사랑하면서 초연한 상태로 머물 것이다. 앗차.

**1984 년도 국제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

침묵의 분위기가 가능한 한 많게 해라. 여기에 오는 자들이 이것이 신의 지식이며 신의 장소라는 경험을 갖고 돌아가게 해라. 너희가 경험을 주겠다는 목표를 가진 그런 분위기이게 해라. 흥미로운 요점만 주는 데 관여하지 말고, 말하는 동안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험을 줘라. 이것이 신의 길이며 신이 왔다고 모든 이가 말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간직해라. 이것이 아주 좋다는 말은 그들이 이미 하지만, 이젠 신이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게 해라. 지식이 아주 좋다고 그들은 얘기하지만 이제는 지식의 공여자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해라. 이젠 그 기초를

다져놓아라. 씨앗이 저 위에서 오면 그때는 완성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씨앗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면 나무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흥미를 느껴서 스스로 이 장소에 오므로 그들이 이 장소의 특별함을 보고 경험하게 해라. 그들의 관점을 듣고 너희의 견해를 바꾸지 말고, 이젠 그들이 너희의 관점을 경험하고 자기들의 견해를 바꾸게 될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강의하려는 목표를 가졌을 때는 그들의 주의가 요점에 쏠린다. 하지만 너희가 아버지를 드러내려는 목표를 가지면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보일 것이다. 너희의 목표가 어떠한냐에 따라 결과도 그러할 것이다. 앗차.

**Blessing:** 마스터 트리칼다르시 (시간의 세 측면을 아는 자)가 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앞으로써 마야의 정복자가 되어라.

시간의 세 측면을 아는 자녀들은 결코 마야에게 패배당할 수 없는데, 트리칼다르시인 영혼의 지각에는 현재가 무엇이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나는 무엇이고 나는 향후에 무엇이 될 것인가,” 그들은 현재와 미래 양쪽 모두에 대한 도취감을 가진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도취감의 행복 속에 날아다니고, 이런 이유로 그들의 발은 항상 땅보다 위에 있다. 그들은 몸, 육신의 친척들, 몸이 오래 지녀온 소유물 등에 이끌리지 않는다.

**Slogan:** 넉넉함의 미덕을 가진 자들에게는 집회 안에서 처신하는 일이 아주 쉽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